

‘캠’ 출신 온누리안 여성 불 타버린 ‘코리안 드림’

방화로 남편·시아머니 사망... 자신과 아들은 화상

낯선 한국땅으로 시집은 캄보디아 출신 ‘온누리안’(이주여성)의 소박한 꿈이 잿더미로 변했다. 첫 아기를 낳고 화목하게 살던 가정은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쳐 1년도 못돼 경제박산났다.

1일 오후 담양경찰서 형사계에서 참고인 진술을 하던 캄보디아 출신 T(여·21·담양군 봉산면 신화리)씨는 남편 김모(46)씨와 시어머니(78)의 죽음에 넋을 잃었다.

“경제적으로 어렵긴 했지만, 좋은 가정을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이날 오전 10시경 T씨에게는 예상하지 못한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평소 어려운 살림을 고민해오던 남편이 갑자기 “다함께 죽자”며 T씨와 시어머니, 생후 2개월 된 아들 등 일가족 4명의 몸에 등유를 뿌리고 자살을 기도한 것이다. T씨는 라이터를 들고 불을 붙이려는 남편을 30여 분 동안 달려다 아기를 안고 방안을 뛰쳐나왔

다. 하지만 곧바로 시커먼 불길이 솟아올랐다. 이웃주민의 신고로 소방관들이 출동했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불에 타 목숨을 잃었다. 자신과 생후 2개월 된 아들도 화상을 입었다.

T씨는 지난해 9월 캄보디아에서 맞선을 본 후 한국에 들어와 12월1일 혼인 신고를 했다. 남편과의 나이 차이가 25살이나 되고 한국말도 못했지만, 술을 앞에 대지 않는 남편이 좋았다. 전날에도 T씨는 늦둥이 아들의 B형 감염 예방 접종을 위해 남편과 팔짱을 끼고 마을 보건진소를 찾았다.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금슬이 좋았던 부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만듦은 견디기 힘들었다. 눈 10마지기를 짓는 남편은 결혼하는데 2천여만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액은 주위에서 빌린 돈이었다. 눈 2천여 평에서 나오는 쌀은 빛을 갠데 들어가고, 네 식구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다. 캄보디아에 있는 친정에 송금하는 것은 엄두도 못 냈다.

만 타국 땅에서 어느 누구 하나 아는 사람 없는 T씨는 이제, 남편과 시어머니의 죽음으로 의지할 곳을 모두 잃고 말았다.



생활고에 시달린 남편의 방화로 잿더미로 변한 ‘온누리안’ T씨의 집. /담양=인현주기자 ajh@kwangju.co.kr

/안현주기자 ajh@kwangju.co.kr /담양=채재희기자 jhwha@kwangju.co.kr

이주 외국인 여성 광주·전남에 7천여 명

국제결혼을 통해 광주·전남으로 이주한 외국인 여성은 현재 7천여 명에 이른다. 광주시의 경우 10월 말 현재 2천500명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남의 경우 2005년 2천500여 명에서 지난해 3천537명으로 1천여 명이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500여 명이 증가했다. 반면 전남지역 전체 이혼건수 3천894건 중 7.16%인 279건이 외국인 여성이었다. 이는 제주도 다음으로 높은 비율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10개大 편입학 특별 조사

교육부, 미리 적발땀 정원감축 등 제재

교육부는 서울 소재 주요 사립대 등을 비롯한 대학 10여 곳을 선정, 편입학 비리 의혹에 대한 특별 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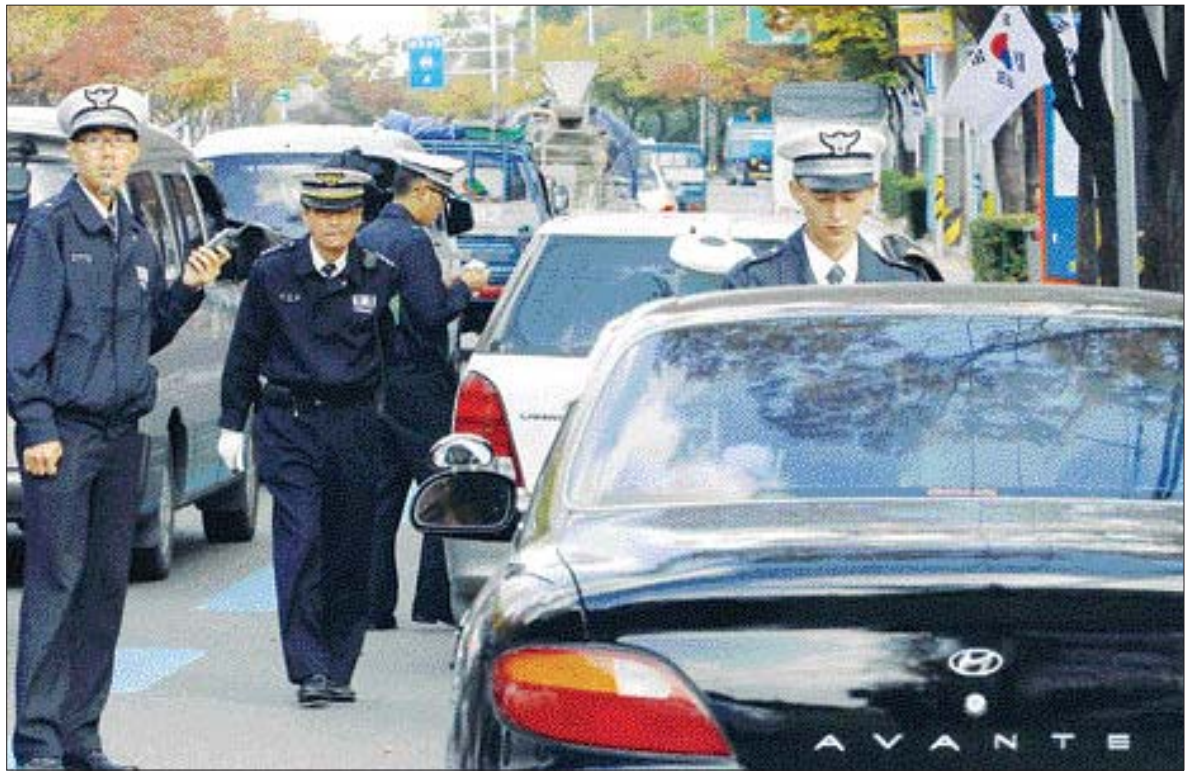
편입학 실태 조사 대상에는 1학기 모집 인원이 200명 이상인 대학들로

서울 소재 주요 사립대들이 많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사 대상 시기는 2004학년도 1학기 이후인 것으로 전해졌다.

편입학은 대학 2학년을 마친 뒤 3학년에 편입하는 일반 편입학과 대학

을 졸업한 뒤 다시 입학하는 학사 편입학으로 나뉘며 편입학 제도를 시행 중인 대학은 국공립대 24곳, 사립대 140곳 등이다.

2007학년도 1학기의 경우 국공립대 24곳에서 1만8천986명이 응시, 4천819명(일반 편입학 3천803명, 학사 편입학 1천16명)이 선발됐으며 사립대 140곳에는 20만5천764명이 지원, 2만5천892명이 합격돼 총 3만711명이 편입학을 했다. /연합뉴스



“안전띠 꼭 매세요”

광주지방경찰청은 11월 한 달간을 ‘안전띠 미착용’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1일부터 광주 시내 전 도로에서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 운전자 또는 동석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KTX ‘1인 승무제’ 첫날 충돌

광주·목포역 노숙 운행 방해...출발 지연

코레일(KORAIL·한국철도공사)이 1일부터 무궁화호 열차에 대해 ‘1인 승무제’를 도입, 시범 운행에 들어가면서 광주·목포역 등에서 노사가 충돌을 빚었다.

1일 광주시 북구 중흥동 광역 3번 승강장에 ‘철도 해고자 복직 투쟁 위원회’와 ‘철도공사 순천지방본부’ 소속 노조원 20명이 몰려와 기관사들의 열차운행을 방해했다. 이 때문에 이날 오전 11시5분 출발 예정이던 광주-용산행 무궁화호 열차의 출발이 20분가량 지연됐다. 열차에 타고 있

던 승객 100여 명은 “바쁜데, 언제 출발하느냐. 요금을 환불해 달라”며 광역 측에 거세게 항의했다.

목포역 사무소에서도 해고자 등 노조원 40명이 오전 9시30분(목포-광주행)·11시25분(목포-용산행) 출발한 무궁화호 열차 운행을 막았으나 사무소 측이 대해 인력을 긴급 투입해 정상 출발했다.

코레일 광역의 사무소 관계자는 “주동자와 관련자를 사규에 의거 징계 등 엄중 처벌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

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1인 승무를 노사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사측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레일은 인력 운용 효율화를 명목으로 1일부터 호남선을 비롯한 경부선·충북선 등 무궁화호 열차 37편을 대상으로 ‘1인 승무제’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우울증 여성 자살 잇따라

지난달 31일 오후 3시40분께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드들강에 윤모(여·54·나주시 남평읍)씨가 빠져 숨져있는 것을 순찰 중인 경찰이 발견했다.

윤씨는 수년 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고 최근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전 11시5분께는 무안군 삼향면 왕산리 중등도 저수지에서 이모(여·34·무안군 삼향면)씨가 숨져있는 것을 마을 주민 양모(80)씨가 발견했다.

양씨는 “저수지 주변을 걷던 중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이 이상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가 10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다는 가족들의 말에 따라 투신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나무 밑에 돈 묻으면 금슬 좋아진다”

○“지리산 나무 밑에 현금을 묻으면 부부 금슬이 좋아진다”며 일가족 7명을 숨겨 수천만원을 챙긴 50대 역술인이 경찰에 달미.

○1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여모(58)씨는 지난 2005년 5월 초계 북구 우산동 자기 집에 점을 보러 온 이모(여·71)씨 등을 숨겨 20여 차례에 걸쳐 현금 2천만원을 가로챘다.

○여씨는 현재 또 다른 사기 혐의로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중으로, 경찰은 피해자 이씨의 신고로 추가 범행을 확인.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아들 탄 어린이집 차량에 치어... 안타까운 엄마의 죽음

어제 진도에서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던 어머니가 어린이집 차량에 치어 숨졌다.

1일 오전 9시경 진도군 근내면 한의리에서 김모(여·24)씨가 진도S 어린이집 운전기사 이모(53)씨가 몰던 ‘전남 70무19××호’ 이스타나 승합차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당시 김씨는 아들 2명 중 큰아들

(4)를 어린이집 차에 태운 뒤 문이 열린 상태에서 얼굴에 로션을 바르려고 있었다. 차 밖에 서 있던 작은 아들(3)은 사고 순간을 목격한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 이씨가 어머니 김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를 출발시킨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kwangju.co.kr

RODEM 로템갤러리 - 직수입 엔틱가구 -

특가 SALE

로템갤러리

가을맞이

특별한 감동 판공 높이 드립니다

전공상품 30%~최고 50%

문의전화: 0629-093-1022